

# 체험·탐구·토론 중심 수학 학습공간 조성한다

전북교육청, 2026년 수학교육 환경개선 지원 추진  
 참여 희망 학교, 23일까지 공모사업시스템으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수학교육 환경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생 중심의 체험·탐구·토론 수업이 가능한 수학교과실 환경 조성 및 미래형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수학 교실, 활동 중심 수학수업을 위한 교구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는 기존 수학교과실을 학생 활동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는 '탐구형 수

학교과실'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이 융합된 '지능형 수학교과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 모두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선정된 학교에는 공간 환경 개선과 첨단 학습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학 교구 구입 지원도 확대해 활동 중심 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를 학교 현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탐구형 수학교과실은 교당 1,500만~3,000만원, 지능형 수학교과실은 교당 5,000만원 내외, 수학 교구구입은 교당 30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경험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시스템(www.jbe.go.kr/gongm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수학을 더욱 흥미롭게 배우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최대 자치구인 비양주르흐구와 최대 1,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형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대, 몽골서 유학생 최대 1000명 유치

울란바토르 비양주르흐구와 대형 MOA 체결... 지난해 6월 17일 체결한 MOU 후속 조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최대 자치구인 비양주르흐구와 최대 1,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형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1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핵심 전략인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글로벌 허브 대학 도약을 향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양오봉 총장이 지난 10~11일 직접 몽골 현지를 방문해 협약을 맺었다.  
 특히 양 총장은 몽골 교육부 청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공식 접견하고, 피

지컬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최첨단 융합기술 분야에서 전북대의 교육 경쟁력을 소개했다. 또한 양국 간 상호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확장을 강조했다.  
 협약 서명식은 비양주르흐구 구의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의장을 포함한 50여 명의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협력 분야로는 △AI △자원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트목공학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경영학 △무역학 등 실무전공까지 포함했다.

기바타르 비양주르흐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양국의 미래를 잇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구의회 연설을 통해 "전북대는 몽골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존중과 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는 물론, 인생의 목표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양주르흐구는 올해만 4,071명의 고등교육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이다. /장은성 기자

## AI 교육협력 강화... 우석대, 미래교육연구원과 '맞손'

인·물적자원 상호 교류  
 AI 교육과정 협의 등 추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4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과 AI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임정영 미래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교류 △AI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 및 실무 교류 △AI 교육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 실현 △AI 관련 기획 및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 중 하나인 AI 교육을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 고



우석대학교는 14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과 AI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석대학교의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AI 인재 양성과 창의적 교육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핵융합발전로 설계 기술 특허 등록

전북대 홍봉근 교수

전북대학교 홍봉근 교수(공대 양자시스템공학과)는 최근 핵융합발전로 설계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허기술은 수많은 핵융합 설계 변수들에 대해 성능, 크기, 비용 등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핵융합로 설계 방식으로,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의 핵융합 발전로의 크기와 형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핵융합에너지는 세계적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



열하게 경쟁 중인 블루오션 분야다. 특히 최근엔 외국의 민간 스타트업들도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4년 7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수립, 혁신 기술을 접목한 소형 핵융

합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개념 설계,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홍 교수의 설계방법이 핵융합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 교수는 "혁신형 소형 핵융합로 개념은 향후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기점으로, 세계적 주도권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중심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계 활동을 통해 구체적 개념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표적감사 규탄"

도내 교육단체들 "부당징계 즉각 철회해야" 촉구  
 전북교육청 "지난해 도의회 감사 요청 따라 실시"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 표적감사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자몽 마을교사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에 일상 간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파견교사 10명 전원이 행정처분을, 이 중 4명은 경징계를 받았다"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내용으로는 마을교사 등에 간식 제공, 학생에 라면 등 일상간식 제공, 대리서명 등이다.  
 이들은 "과경교사 640만원, 학생 1,850만원, 대리서명 250만원 등 지난 4~5년간 교차 3,000만원 사용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 근조지 한 번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교사에 쓰인 비용은 마을 어르신 등 민간인이었고, 또 대리서명과 관련하여도 대부분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당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12개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몽'을 상대로 유례없이 강도 높은 표적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그 결과를 통보했다"며 "무려 6개월 간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은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을 위한 간식비 지급, 원가 통제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12개 단체는 의견서에 직접 서명한 2,300여 명의 교사·학생·학부모의 뜻을 담아 전북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몽 관련 감사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에서 '자몽' 운영과 관련해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27~29일, 올해 4월 16~24일 감사를 실시해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지난달 4일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현재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 기간이며,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 전국교원양성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0~11일 이틀간 2025학년도 전국교원양성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동교육혁신센터의 첫 공식 회의로, 회장교인 전주교육대학교 주관 아래 전국 10개 국립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공동사업 추진 방향과 분담금(안)을 비롯해 전주교육대학교의 IR 시스템 구축 사례와 IBEC 인증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참여 대학들은 각 대학의 역량을 공유하며 협력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또한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사업과 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춘 총장은 "전국교원양성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를 통한 자원 공유와 교류를 확대해 대학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학생해양수련원 ESG 실천 아나바다 장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원장 장기선)은 14일 본관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ESG 실천 방안으로 전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아나바다 부스를 운영,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의류, 도서, 식품) 등을 판매하고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나바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누군가에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재탄생돼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에 동참한 것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나바다 장터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격려품을 구입, 해양수련원에서 직접 재배한 수국과 함께 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께 전달할 예정이다.  
 장기선 원장은 "아나바다 장터 운영은 일상 생활속에서 환경친화적인 ESG 실천 행동으로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의지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도내 203개 초교서 총 659개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을 보충하고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습도약 계절학기'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보충이 필요한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 등이 방학 중 소규모 학습을 편성, 맞춤형 교과(국어·수학·영어) 보충 지도와 자기주도 학습 태도 함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맞게 5명 내외로 편성·운영된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찾고, 교사는 개별 학습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도내 203개 초등학교에서 책임교육학년인 3학년생을 대상으로는 176개 프

그램을, 2·4·5·6학년 대상으로는 483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참여학생 수는 1,845명이다.  
 특히 학기 전환기인 방학은 학습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학습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배움에 대한 동기 및 흥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하계 방학 중 학습공백으로 인한 기초학력 하락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